

# 교환 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 Choice, Exchange Perspective in Family Research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 명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  
Associate Prof. ; Kim Myung Cha

### 목 차

I. 교환이론의 知的 기원	V. 교환이론과 가족학 연구
II. 교환이론의 기본 전제 및 명제	VI. 맺는 말
III. 교환이론의 기본 개념	참고문헌
IV. 교환이론과 관련된 FAMILY MINI THEORY	

### <Abstract>

Family researchers had devoted little attention to Choice, Exchange theory by the time 1960. Being anchored by Thibaut & Kelley(1959), this theory become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heoretical frameworks for family research.

Waller's(1938) famous rating-dating hypothesis was intrinsically an exchange formulation.

Blood and Wolfe(1960) employed the concept of rewards in their theory of family power.

Farber(1964) also used the reward concept in his theory of permanent availability.

Heer's(1964) specific application of its concepts to spousal power was among its earliest uses in the family.

The general principle or most general proposition of the theory is that humans avoid costly behavior and seek rewarding statuses, to the end maximize profits.

This review will attempt to show that Choice, Exchange theory is applicable to the several arenas of family interaction and that it can provide an explanation for family behavior. Subjects such as mate selection, marital instability, family cohesion, spousal power, the problems of aged, family co-unseling, and so on are included.

By discussing research findings from a perspective of rewards and costs this review will show that the application of the theory is not limited to one or two substantive specialties within the family domain.

After all Choice, Exchange theory is truly general and can be productively applied to any domain of human behavior.

lee3

## I. 교환이론의 知的 基원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호혜성의 과정, 즉 '주고 받기' 혹은 교환과정은 오래전 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교환이론은 사회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기능주의에 대한 代案의 이론으로,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집단 및 사회현상을 분석하고자 20세기 중엽 이후 비교적 최근에 제창되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이론 자체의 정교화 작업과 더불어 그 有用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한 사회학적 이론으로서 발전전망이 크다고 본다. 교환이론은 특히 Homans(1961)가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라는 저서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 이론으로 제기되었으나, 그 사상적 기원은 다양하다. 즉 현대 교환이론은 그 연원을 크게 공리주의 고전경제학, 기능주의 인류학,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볼 수 있으며 주로 이들 세가지 이론들의 혼합물로 여겨진다(Turner, 김진균의 역, 1982).

공리주의 고전경제학의 기본사상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로 자유경쟁시장에서 모든 필요한 정보를 다 얻으려 하고, 모든 유용한 선택지(choice)를 다 고려한 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거래에 있어 비용을 극소화하고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선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교환이론은 물질적 교환관계뿐 아니라, 비물질적 상징적 교환관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학과 경제학의 교환개념과는 상이하다. 결국 합리주의적 고전 경제학적 사상은 사회 인류학과 행동주의를 통과하면서 현대 교환이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에 기능주의적 인류학적 사상은 교환되는 물질의 가치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부터 받는 호의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호혜성의 규범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른 호혜적인 교환행위자체는 사회의 응집력을 높이고 통합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체계에서의 교환관계는 개인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 교환의 복잡한 연결망으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즉 상징적 교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구조적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는데 개인적 동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구조가 교환관계분석에 중요한 변수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적 사상은 Skinner상자나 다른 유사한 실험적 상황에서의 동물행동에 대한 관찰로 부터 그 원리를 끌어낸 이론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공리주의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을 관찰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동물이나 인간은 모두 가장 많은 강화와 가장 적은 벌을 가져올 선택지를 추구하는 보상추구 유기체라는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고방식이 복잡하며, 그들의 사고는 감정적이며, 많은 사회적, 문화적 제도에 의해 규제되므로 교환관계는 행동주의 원리에, 내적인 심리적 과정 그리고 사회구조와 문화규범을 모두 나타내는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 II. 교환이론의 기본 전제 및 명제

교환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인간은 누구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상호작용에서 보상감을 극대화하고 댓가를 극소화하여 가능한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행동을 교환행동의 연속적 과정인 상호작용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상호작용행동은 선택적임을 전제로 한다.

먼저 Homan가 제안한 사회적 행동의 기본명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행동의 기본명제(Ritzer, 최재현 역, 1986)

(1) 성공명제 : 개인의 고정한 행위에 대하여 보상이 자주 주어지면 질수록, 그 행위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은 커지며, 이것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결정이론에서의 주관적 가능성의 예측이나 기대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극명제 : 과거에 특수한 자극 또는 일련의 자극들로 개인이 행위가 보상받는 계기가 되었다면, 현재의 자극이 과거와 유사할수록 개인은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3) 가치명제 : 개인이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에게 가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행위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커진다.

(4) 박탈-포만명제 : 개인의 특정행동에 대하여, 최근에 특정보상을 자주 받았을 수록, 앞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은 그에게는 덜 소중하게 된다. 여기에는 경제학 이론에서의 한계효용법칙이 나타나있다.

(5) 공격-인정명제 : ㉔ 개인의 어떤 행위에 대하여 기대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예상외의 벌을 받게 되면 그는 화를 낼 것이다. ㉕ 개인이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가 기대한 보상이 주어질 때, 특히 그가 기대한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거나, 그가 받으리라 여겼던 벌을 받지 않게 되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즉 그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6) 합리성 명제 : 여러가지 대안적 행위들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때, 개인은 그 결과의 가치와 그 결과를 얻을 확률을 곱한 값이 더 크다고 여기는 행위를 선택한다.

결국 위의 6가지 명제들을 요약하면, 어떤 특정행위의 가능성은 과거에 받은 보상의 빈도, 받은 보상의 가치, 과거에 보상을 받은 행위의 상황과 현재상황의 유사성 정도의 비례에 따라 증가하고, 이익이나 보상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Nye(1979)는 교환이론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분화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명제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명제들은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집단이나 조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 2. 이론적 명제(theoretical propositions)

(1) 개인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2) 댓가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3) 보상이 같을 경우에는, 가장 작은 댓가를 치루리라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4) 현재의 결과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보다 나은 결과가 보장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5) 미래의 결과가 같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현재에 보다 나은 결과를 제공해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위의 5가지 일반적 명제 외에, 특정한 보상, 댓가와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는 덜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제를 추가하여 제안 하였다.

(6)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가장 많은 사회적 인정을 받거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7)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가장 큰 자율감을 제공해 주는 상황이나 관계를 선택한다.

(8)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미래의 결과가 가장 덜 모호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9)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자신들에게 가장 많은 안전감을 보장해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10)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하며,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들을 피하거나, 거부한다.

(11)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자신과 동등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동등한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거나,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12) 산업사회에서 댓가나 보상이 같다면, 최대한의 재정적 수입과 최소한의 재정적 지출을 보장해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 3. 기본 가정(basic assumptions)

Nye는 Thibaut & Kelley(1959), Homans(1961)의 이론을 주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Blau(1964), Simpson(1972), Heath(1976)의 이론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을 제안하였다.

### (1) 부분 이론의 기본가정

교환의 기본적 분석단위를 개개인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으로 보고 2인, 3인 소규모집단에서의 관계가 중점을 둔 초기 교환이론가들의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비교적 제한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 ①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개인이 지닌 제한된 정보와 미래에 대한 제한된 예측능력내에서 개인은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상태를

선택하나.

② 인간은 행위자인 동시에 반응자이다.

인간의 행동이 문화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며 행동을 주도한다.

③ 인간은 보상을 얻기 위하여는 댓가를 감수해야 한다.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보상이 될 수도 있는 노력과 시간이라는 댓가가 따른다.

④ 과거에 보상을 받지 않았던 사회적 행위는 반복하지 않는다.

⑤ 이익이 되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되면, 가장 적은 손실이 따른다고 여기는 애안을 선택한다. 댓가가 따르는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면, 가장 적은 손실이 따르리라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⑥ 마땅히 받을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족감을 느끼고,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노감을 느끼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책감을 경험한다.

⑦ 사회생활은 호혜성을 요구한다.

⑧ 자신을 고의로 해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댓가를 치루게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보상이다.

⑨ 대개의 경우, 벌을 받는데 대한 댓가가, 벌을 주는데 따르는 보상보다 더 크다.

⑩ 특정한 사물, 경험, 관계, 지위 등에 부여하는 가치는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특정사회내에서, 어떤 것이 보상이고, 댓가인지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일치하나 그 우선순위는 상이하다.

⑪ 어떤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그것의 부가적 가치는 적어진다.

## (2) 일반 이론의 가정들

인간행동과 문화, 제조, 조직, 다양한 크기의 집단과 같은 사회구조의 설명에 중점을 둔 거시적 교환이론가들의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비교적 일반화 할 수 있는 가정이라 할 수 있다.

⑫ 비록 부적당한 정보나 그릇된 예언에 근거할 지라도 모든 행위는 이성적이다.

⑬ 집단, 조직, 관계 심지어는 국가도, 댓가를 극

소화하고 보상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물론 이러한 집단의 지도자가 구성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도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도 있으나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아 차린다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할 것이다.

⑭ 인간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나 교육, 경제제도 등으로 부터 가능한 한 많은 보상과 적은 댓가를 받으리라 기대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또한 이러한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리라 기대한다. 즉 인간은 사회가 개인을 위해 최대한의 보상과 최대한의 댓가를 제공해 주는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라고 여긴다.

⑮ 인간은 자신과 사회, 사회제도간에 일반적 호혜성을 개념화 할 수 있다. 즉 사회조직에 대한 투자없이 사회생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⑯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 그가 속한 집단 구성원의 보상과 댓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 다른 구성원의 댓가를 증가시키고 보상을 감소시킨다고 여길 때는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선택을 억제할 수 있다.

## Ⅲ. 교환이론의 기본 개념

### 1. 보상(reward)

상호작용하는 개인에게 주는 만족감, 기쁨 등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자율성, 안정감, 화폐, 가치, 동의, 명료성 등이 이에 속하며 긍정적 강화와 동의오이다.

### 2. 교환자원(교환 보상물)

교환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에 부응하며, 상대방이 이용가능한 모든 보상을 총칭한다. 교환자원에서 금전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감정 및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것이 있다. Blood &

Wolfe(1960)는 신체적 매력, 위엄, 재능, 가사능력,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들을 자원으로 보았으며, Foa & Foa(1974)는 애정, 지위, 서비스, 정보, 물질, 재화를 자원으로 보고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의 상호교환법칙의 차이를 밝혔다. 여기에서 애정은 특수자원으로, 특정한 개인과의 상호교환에 가장 영향을 받으며, 물질과 재화는 누구와 상호교환하는가에 대하여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보편적 자원이며, 물질적 자원의 교환은 zero-sum game이라고 했다. 그의 Osmond(1978)는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과 관련된 태도, 소유물 환경을 총칭하여 자원으로 보았다.

교환자원의 유용성은 그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데, 이러한 가치평가가 곧 교환의 정당성, 또는 공정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비물질적 자원의 경우, 객관적 기준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환상황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르게 마련이다. 자원이란 행위자의 소유물이나 특성이라기 보다는, 행위자 간의 관계에 의해 정의되며, 상대방이 가치롭게 여길 때 개인의 어떤 능력도 자원으로 작용한다. Blau는 교환자원의 일반화된 형태를 금전, 사회적 승인, 존중이나 존경, 복종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가치에 대하여 등급을 매겼는데, 이 중 가장 가치가 큰 자원은 복종으로 상대방을 복종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불균형한 교환관계는 결국 권력과 복종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교환자원을 권력자원이라 부르기도 한다(최성재, 1985).

### 3. 댓가(cost)

일련의 행동을 수행하려 할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가하는 모든 요인.

(1) 벌처럼 개인이 싫어하는 것, 박해, 불신, 거절 당하는 위치에 처함, 극도의 고립, 흑한, 흑서와 같은 물리적 환경, 신체적 불편함, 불확실성, 모호성 등.

(2) 특정 상황을 선택하므로 잃게 되는 시간, 노력, 돈, 지위, 관계 등으로 경제이론에서 취급되는 개념이나 Emerson는 교환이론에서는 심리적 고려나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4. 이익(profit)

특정 상황에서 보상과 댓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인이나 집단은 최대한의 이익과 최소한의 손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익=보상 - 댓가

### 5. 비교수준(Comparision level : CL)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느끼는 수준에서의 평가기준으로 한 개인이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현재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초임교사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수나 지위를 원로교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다른 초임교사와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을 평가 할 수 있다.

### 6. 대안에 대한 비교수준(Comparision level of Alternatives, CLalt)

현재 상황이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결과와, 대안적 상황에서 얻어질 결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판단의 기준이다. 현재 상황이 비교수준 이상에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지 않으나 비교수준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대안을 찾지 마련인데 이때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선택은, 기존의 상황을 떠나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는데 수반하는 모든 댓가를 보상한다고 생각될 때에 가능하다.

### 7. 권력(Power)

교환관계에 들어가는 행위자는 가능한 대등한 입장에서 호혜적, 상호의존적으로 균형화된 즉 공평한 교환관계를 형성, 유지하고자 하나, 많은 경우에, 교환관계가 교환자원의 불균형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의존적 관계가 생기고, 결국은 이 의존적 관계는 상대방에게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 즉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교환되는 자원의 가치가 상이하며, 보다 우월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많이 제공한 쪽이 권력이 크게 된다. 결국 권력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얻어내는 능력, 혹은 상대방의 보상이나 댓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대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며, 개인적 자질이라기 보다는 구조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

#### 8. 규범(norms)

상호관계에서 안정되는 행동규칙으로 오래 지속된 인간관계일 수록 안정된 규범이 유지되며 일단 규범이 정해지면 구성원 사이에 댓가는 감소된다. 규범에서 이탈된 경우 댓가가 증가한다.

#### 9. 호혜성의 규범(norm of reciprocity)

인간은 타인으로 부터 받은 도움을 상환해 주는 호혜성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으로 Gouldner는 인간은 자신을 도운 사람을 도와주며, 자신을 도와 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교환의 2개 영역을 강조했다. Ekeh는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교환까지 확산·적용시켰으며 이것은 두 사람간의 교환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 IV. 교환이론과 관련된 Family Mini Theory(Nye, 1982)

#### 1. Waller(1937) : 남녀 교제에 대한 상호평가(Rating & Dating)

Waller는 남녀교제 행위를 이성적이며, 계산된 행위로 해석했다. 이성교제에서 남녀 모두 자신의 인기가 높기를 원하는데, 인기가 낮은 남성이 인기있는 여성과 교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댓가를 치루는 반면, 인기 낮은 여성이 인기높은 남성과 교제하는 경우에는 性的인 댓가를 치룬다는 것이다. 인기가 높은 편에서 기대했던 보상을 못받는 경우, 그 관계는 끝난다.

#### 2. Wallwe & Hill(1951) : 최소 이해의 원칙(Principle of Least Interest)

상호관계에서 관계의 지속에 흥미나 관심이 적은 사람이 강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사람보다 들은 관계를 정의하는데 보다 큰 결정권을 지닌다.

A-1 상호관계에서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관계의 지속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다.

A-2 상호관계에서 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의 지속에 대한 관심이 적다.

A-3 상호관계에서 보상이 적고 댓가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의 관계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 사람이 관계 자체 이외의 보상(예 : 비싼 오락, sex)을 늘 요구한다.

A-4 그 관계에 덜 몰입된 사람이 그 관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더 크다.

#### 3. Blood & Wolfe(1960) : 가족권력에서의 자원 이론(Resource Theory of Family Power)

자원이 보상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기본적인 명제는 부부관계에서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한 배우자가 보다 큰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으로, 여기에 Clait 개념을 추가하여, 부부관계 이외에서 취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에 의해 권력이 영향 받는다.

B-1 배우자 A가 결혼생활에 보다 많은 자원을 제공할 수록, A의 권력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B-2 배우자 A에게 보상의 유용한 대안적 공급처가 있을 수록, B는 의사결정을 양보하는 경향이 크다.

B-3 A가 B에게 댓가를 과할 능력이 클수록, A의 상대적 권력은 큰 경향을 보인다.

B-4 A가 부부관계 이외의 다른 곳으로 부터 취할 수 있는 대안적 보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록, 자신의 권력을 증가하기 위하여 B에게 댓가를 부과시키는 경향이 크다.

B-5 역할수행에서 대부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역할행동에 관해 많은 의사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B-6 A에 의하여 수행된 역할의 결과가 B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록 B는 역할수행에 대한 의사결정에 더욱 참여하며 동등성을 주장하는 경향이다.

#### 4. Farber(1964) : 배우자 선택의 영구적 가능성 (Permanent Availability Theory)

친족집단간의 유대가 감소함에 따라 배우자선택에 대한 친족의 영향력이 감소되며, 따라서 개인은 결혼시장에서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상대방을 바꾸면서 자신을 'permanently available'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배우자보다 더 큰 보상을 제공하리라 생각되는 상대방이 있으면 새로운 관계를 위해, 현재의 관계를 떠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혼에 따르는 댓가, 재혼에 따르는 불확실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C-1 재혼이 현재의 결혼보다 월등이 나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며, 또한 이혼에 따르는 댓가를 보상해 주리라 생각하는 배우자는 이혼할 것이다.

#### 5. Scanzoni(1972) : 성 역할에 대한 협상(Sexual Bargaining)

부인이 취업과 관련하여, 가사, 육아로 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 부인의 취업에 따르는 댓가, 그리고 가족의 수입과 권력행사의 관계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의 성역할선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성역할 이론이 전통적 가정주부의 역할로 부터 얻는 보상과, 취업에 따르는 댓가를 포함함을 나타내준다.

- D-1 전통적 가정주부의 역할을 선택한 여성은, 취업보다는 가사노동에서 더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 D-2 전통적 가정주부의 역할을 선택한 여성은 취업보다는, 가사노동이 더욱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 D-3 전통적 가정주부의 역할을 선택한 여성은, 취업보다 가사노동을 통해 더욱 더 큰 보상을 발견하는 경향이다.
- D-4 전통적 가정주부의 역할을 선택한 여성은, 취업

이 자신의 개인적, 私的인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 6. Reiss & Miller(1979) : 성행위 허용에 대한 자율이론 (Autonomy Theory of Sexual Permissiveness)

성행위에 따른 보상을 강조하는 젊은이중심의 문화가 만연할 수록, 또한 젊은이들이 가족이나 제도로 부터의 간섭과 제한을 받지 않을 수록, 그들은 성행위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다. 제도적으로 성행위를 허용하는 사회일수록, 성행위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다. 그러나 가족생활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젊은이일 수록 성행위에 대해 덜 허용적이다.

- E-1 혼외 성행위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적을수록 젊은이들은 이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혼외 성행위가 보다 만연한다(댓가감소).
- E-2 혼외 성행위에 대해 긍정적 언급이 많을 수록 그러한 행위가 보다 만연한다(인정, 승인이라는 보상).
- E-3 혼외 성행위가 배우자 선택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허용적 태도를 덜 갖는 경향이다(원하는 결혼을 못 할 것에 대한 댓가).
- E-4 혼외 성행위가 결혼으로 이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결혼에 관심이 없고, 결혼상대자와의 성행위를 억제하는 젊은이보다, 성행위에 더 관여한다.
- E-5 합법적 유산이 인정된 사회에서는 성행위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다(댓가의 감소)

### V. 교환이론과 가족학 연구

지난 20여년간 교환이론은 2인 혹은 소집단에서 상호작용의 과정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적 틀로 부상되어 왔는데, 그 기원은 Waller(1937)의 'Rating & Dating Hypotheses'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 Thibaut & Kelley(1959)의 'Goodness of Outcome' (Kelley, Thibaut, 1978), Blood & Wolfe(1960)의 'Resource Theory of Power'와 Farber(1964)의 'Theory of Permanent Availability'에 의해 가족학 연구에서 주

목을 받게 되었다.

사실상 1960년대 까지만 하여도 결혼, 가족학 분야의 연구에서 구조기능주의, 상호작용론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발달론적 접근이 일부에서 시도되었고 가족학연구에 관한 교환이론의 영향은 미미한 것이었다.

Nye & Berado(1966, 1982)가 'Emerging Conceptual Framework in Family Analysis'의 초판을 낼 무렵만 해도 교환이론에 대한 가족학자들의 관심은 거의 없어, 교환이론을 제외한 11개의 이론적 틀만 취급하였을 정도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교환이론이 가족학연구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 확산 적용되고, 그 응용 역시 증가하였다. 1970년대를 통하여 교환이론의 기본개념을 인용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가족학연구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로 부상되고 있으며, Scanzoni(1972), Nye(1978, 1982), Burr et.al(1978), Mcdomald(1980) 등의 주된 공헌으로 가족학 연구에 광범위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Burr et al.(1979) 의해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가 출간되어 많은 명제들을 발전시키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교환이론이 가족학 연구에 매우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 1. 배우자 선택

배우자 선택기 남성,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시장에서 행하여 지는데 이때 교환은 이들이 지닌 물질적, 비물질적 제반 자원에 의해 영향 받으며 누구나가 자신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한다.

남녀가 각기 상이한 자원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제공된 자원의 질과 양이 상호평형을 유지할 때 동등한 결합으로 여긴다. 개인은 자신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보상만큼, 상대방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이를 들어 상호 반대되는 자원이나 특성을 교환함으로써 평형이 유지되므로 평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개념과는 사이하다. 즉 저명한, 그러나 나이 든 정치가가, 사회적 지위는 없으나,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정치가의 권력과 지위는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으로, 또한 정치가의 나이는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 상호평형을 이루는 것이 그 예이다.

Murstein의 배우자 선택과정에 대한 자극, 가치, 역할(Stimulus-Value-Role)이론은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제기된 이론으로 특히 자극단계에서는 정신적, 신

### 행복감 : 비교수준 높음

유형2 : CL이 수준이상이며 행복하더라도 보다 나은 관계가 보장되는 선택의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현재의 부부관계에서 얻는 보상보다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현재의 관계를 종결할 수 있음.

불안정성 : 대안의 가능성 있음

유형3 : 현재 결혼이 불행할 뿐 아니라 대안의 선택이 보다 큰 보상을 주리라 생각하므로 이혼, 별거에 이르게 되는 관계

### 불행감 : 비교수준 낮음

여기서 비교수준은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 행복도의 여부를 대안의 가능성은 부부관계를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밖에 결혼안정성에 댓가, 또는 보상으로 작용하는 변인은 남, 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가치관의 상이성여부, 준거집단의 반대여부 등이다.

유형1 : 자신의 결혼이, 자신과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여, 그 이상이라고 생각되므로, 현재의 관계를 고수하고자 하며 따라서 비교적 행복하고 안정성 있는 관계임

안정성 : 대안의 가능성 없음

유형4 : 현재의 결혼이 행복하지는 않으나 대안의 선택에 다른 여러가지 댓가(예 : 사회의 비난, 경제적 곤란, 지위상실 등) 때문에 그대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임.



체적, 사회적 평판 등에 관심을 두고, 상호 느끼는 총체적 매력에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룰 때 다음 다음 단계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 2. 결혼의 불안정성

결혼의 안정성 여부는 비교수준(CL)과, 대안의 가능성(CLalt) 여부에 따라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 가족원의 응집력

Nye(1973)는 인간을 자율성(autonomy)을 추구하는 동시에 안전감(security)을 추구한다는 전제하에 이 두가지 기본가치는 상호 배타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인간은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제반욕구를 충족할 수 있으나 (안전감-보상) 어떠한 집단이나, 그 집단은 개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통제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개인에게 댓가로 작용한다.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집단의 요구를 조화시켜 자율성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최대한의 profit를 얻도록 하여 가족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Nye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Nye는 가족의 응집력을 가족원, 그 가족의 일원임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속적으로 그 구성원으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 (1) Non-Zero-Sum상황추구 : 협동의 관계.

모든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족상황도 협동적 행위와 경쟁적 행위의 두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즉 가족원 모두가 보상을 취할 수 있는 협동적 행위를 격려하는 상황에서는, 배우자에게 많은 보상을 제공할 수록 자신도 많은 보상을 받으며, 부부의 은 행위가 부부 모두의 욕구충족에 동시에 기여하여 가족의 조화, 응집력을 증진시킨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의 보상과 상대방의 댓가에 근거한 행위(예 : 남편의 과도한 오락비 지출) 즉 Zero-Sumz상황이 많을 수록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

### (2) 유사한 가치관, 목표

가족내의 non-zero-sum상황을 극대화하는 조건은 가족원간에 유사한 목표와 가치관(예 : 주거마련, 자녀출산 등)을 지니는 것이다. 가족원의 가치관이거나 목표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목표에 도달함에 따라 가족원 모두가 보상을 받으므로, 협동하여 응집력 있게 목표를 추구한다. 그러나 상이한 가치관이거나 목표를 가진 부부의 경우(예 : 남편은 많은 자녀를 원하나 부인은 무자녀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한쪽의 보상은 상대방의 댓가로 작용(zero-sum 상황)하여 결국 갈등을 유발한다.

### (3) 역할수행의 효율성

가족원의 재능, 동기, 훈련, 생산에너지 활용이 극대화 됨으로써 가족이 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가족원의 욕구와 목표가 충족되기 쉽다. 이러한 가족일수록 가족원은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가족의 일원으로 남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된다.

### (4) 역할구분의 수준

가족내의 경직된 역할구조(예 : 부부 역할이 뚜렷한 구분)는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댓가로 작용하는 반면, 모호한 역할구조에서는 역할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않으며 누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갈등과 불일치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가족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불필요한 강요나 지배없이 필요한 역할이 수행되며, 다른 가족원이 언제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을 수준의 역할 구조가, 가족원으로 하여금 가족집단 유지에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

## 4. 부부간의 권력관계

1960년대에 부부간의 권력에 대한 자원이론의 적용을 검증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부의 영향력 정도와 의사결정 행위등은 배우자 작자가 지닌 자원의 양에 따라 규제되고 영향받는다고 보았다(Blood & Wolfe 1960, Rothchild 1976).

한편 Heer(1963)는 자원이론을 수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내포되는 심리적, 사회적 통제기계에 관심을 두었는데, 즉 배우자, 특히 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또 다른 선택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alternative to marriage)이라고 보고, 대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한 남편의 부인은 또 다른 결혼의 가능성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게 되므로, 이 결혼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가능하면 남편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 이후 Rodman(1972)이 문학적 요인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배우자가 각기 지닌 자원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회에서 자원이 그대로 권력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적 맥락 안에서 자원이 교환되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즉, Rodman에 의하면, 부부간의 권력관계가 개인이 지닌 상대적 자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적 규범이 협상을 허용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남성우위적 규범이 취업 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부인은 오히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불안해 하며, 따라서 취업부인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자원은 권력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Burr et al.(1977)의 연구에서는, 평등적 규범적 지닐수록 부인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부인의 권력이 감소되며, 가부장적 규범을 지닐수록 부인의 수입증가에 따라 권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Rodman의 이론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와같이 권력관계에 대한 교환이론의 적용은 실증적 수준에서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현재로서는 실증적 검증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5. 노인문제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지위약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야기된다는 일반적 주장이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의 지위약화를 노인이 지닌 교

환자원의 약화와 관련시켜 분석하려는 것이 교환이론가들의 입장이다. 즉 노인이 지닌 교환자원의 부족(예: 경제력 상실), 교환자원의 가치저하(예: 노인의 경험, 지식, 기술의 낙후)등은 노인의 개인, 또는 집단으로 교환관계를 형성하는데, 열세에 몰리게 하며 결국 의존성을 증가시키고, 권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개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의 축적이 없는 가운데 은퇴한 노인은 가족내에서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노인의 경험과 전통적 지혜는 자녀들이 습득한 과학적 지식에 비해 상대적인 가치가 저하됨으로써, 자녀들과의 교환관계에서 상대적 열세에 놓여, 의사결정과정에서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자녀들로부터 소외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Dowd(1980)는 노인의 지위가 혈연관계나, 전통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세대들과의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획득되어지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인으로 교환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최성재, 1985).

- (1) 노인의 경제적 수입원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
- (2) 새로운 자격이나 지위를 획득.
- (3) 노인의 사회적 지위, 대우향상을 위한 연합적인 사회행동 전개.
- (4) 평생교육, 훈련 등을 통한 기존 자원의 질 향상 등.

## 6. 가족정책 연구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변동 또는 사회적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이나 프로그램개발의 근거를 제시한다. 즉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는 특정구조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제공되는 보상과 댓가의 본질과 분배를 파악하여 비교적 적은 댓가를 치루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가족정책 수행대상자 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정책결정자, 입법자, 프로그램개발자, 실무담당자 등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의 보상을 극대

화시키는데 그 관심의 초점이 모아진다. Nye & McDonald(1979)는, 교환이론이 특정구조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사람에게 보상, 댓가 결과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구조나 행위의 변동은 구성원의 보상을 증가시키고 댓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보상을 감소시키고 댓가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는 가치선호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부류의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누가 어떤 보상과 댓가를 받는가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사람의 경우에서도 어느 영역에서는 보상을 다른 영역에서는 댓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어떤 특정한 구조나 변동이 모든 사회성원의 보상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목표변화라는 합의점에 도달 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단 현재의 상태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제로든, 잠정적으로든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 변화를 위한 전략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배경에 따라 댓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가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자의 과업은, 현재상태의 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면서 개개인의 형편과 가치관 등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구조의 축소라는 목표합의가 이루어진 젊은 부부들에게 그 전략은 산아제한, 양자 들이기, 금융, 인공유산, 피임 등 다양할 수 있으나 개인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인공유산이라는 전략은 어떤 개인에게는 댓가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상이한 가치체계와 관심,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어떤 부류의 개인에게는 보상이 되고, 이에 대응해서 또 다른 부류의 개인에게는 댓가가 되는, 다시 말하여 zero-sum game을 초래하지 않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의 구조보다는 댓가를 덜 주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념,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정책에 대한 연구에 있어, 교환이론은 누가 어떤 보상과 댓가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고 본다(Nye & McDonald, 1979).

## 7. 기타

### (1) 결혼, 부모됨의 시기

산업화 사회에서 교육, 훈련기간의 연장으로 10대 결혼은 사회적 기대에 어긋나는 일로 간주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성행위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0대에 결혼하고, 10대에 부모가 되는 일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계층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하류계층의 10대들이 중류층의 10대보다 20세 이전에 결혼하고, 부모가 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하류계층의 10대는 높은 학력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갖는 경향이므로, 그들 자신이나 부모는 10대 결혼이 직업에서의 성공이나, 교육에 방해(cost)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성행위

성별, 연령에 따라 성행위에 대한 태도 및 가치, 욕구가 상이하며, 이러한 상이성으로 인해 성행위에는 보상과 댓가에 근거한 남녀간의 협상(bargaining)이 따른다.

Nye(1979)는 피임도구의 사용, 원치않는 임신, 혼외 성행위에 대한 비난, 불완전한 성행위에 대한 긴장 등은 모두 댓가로 작용하며, 이러한 댓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욱 많이 경험하며,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성행위에 덜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 (3) 의사소통

많은 가족학 연구에서 의사소통의 부족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나, overcommunication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최적의 의사소통수준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나 완전히 고립되어 의사소통사회를 빼앗긴 사람은 외로움, 불안감을 느낄 것이며, 반면 계속해서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피로감, 요구불만 등에 빠져 이것은 개인의 만족감에 모두 댓가로 작

용한다. 즉 의사소통의 양과 여기에 참여하는 개인의 만족감은 곡선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에서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동의, 동조와 같은 긍정적 의사소통은 보상으로 작용하여 그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며, 반대, 비난, 통제 등과 같은 부정적 의사소통은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 (4) 부인의 취업

가정주부로 남는 것에 비해, 취업을 통하여 댓가(예: 시간, 노력)보다는 더욱 많은 보상(예: 재화)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인은 취업하는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부인의 취업에 따른 댓가,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Nye(1979)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① 막내자녀 연령: 막내자녀가 어릴 수록 그 어머니는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다.

② 자녀의 수: 돌보아야 할 자녀수가 많을 수록 그 어머니는 취업하지 않는 경향이다.

③ 계층: 하류층에서는 부인이 취업하는 경우가 취업하지 않는 경우보다 부부관계에 더 많은 갈등을 보이며 이러한 갈등은 중류층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학력: 백인의 경우, 부인의 학력이 높을 수록 취업하는 경향이 많으며, 흑인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⑤ 인종: 흑인남성의 높은 실업율, 보다 많은 결혼 가족등의 이유로 백인보다는 흑인부인의 취업율이 높은 경향이다.

⑥ 취업부인의 퇴직: 55세 이상에서는 새로 취업하는 경우보다 은퇴하는 경우가 더 많다.

#### (5) 가족의 형태

Winch는 정치제도나 가족제도보다는 경제제도가 가족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수렵 채집사회와 산업사회의 보편적 가족형태는 핵가족이라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도 부모가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경우일수록(보상), 결혼한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크며 또한 결혼한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율적인 핵가족을 수립하기 보다는 부모와 동거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에는 세대간의 긴장감(댓가)이 수반되므로,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와, 독립해 사는 경우의 보상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젊은 부부는 부모 곁을 떠나 핵가족을 이루는 경향이 클 것이다.

#### (6) 가족 폭력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과 가족의 폭력을 관련시킨 연구가 거의 없었으나 Nye는 앞으로 적용 가능성이 큰 영역으로 보았다.

가족폭력은 흔히 매맞는 아내, 자녀학대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가족폭력에 대한 법적인 금지나, 사회적 통제가 없는 사회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된다.

폭력이 비합법적인 것으로 규정된 사회에서는 적발될 경우 경찰이나 법의 제재를 받으므로(댓가), 폭력을 숨어서 행하는 경향이 크다.

가족내의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먼저 Homans가 언급한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때 자원을 많이 제공한 사람은 많은 보상을 받고, 적게 제공한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는다면, 공평한 배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인이 기대한 것보다 적은 보상을 받거나, 기대하지도 못했던 댓가를 치루어야 할때는 불만이 생기며, 따라서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면은 상대방에게 댓가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것인데, 즉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도 자신에게는 보상이라는 것이다. 잔소리나 바가지가 심한 아내에게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음에, 폭력이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사용된다는 관점인데 Goode(1971)는 개인이 사용가능한 자원이 많을 수록 실제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폭력은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자신을 보충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배적 위치를 원하는 남편이 자신의 낮은 교육수준이나 낮은 직업

지위, 낮은 수입 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은 자원을 지닌 여성일수록 별다른 대안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폭력이 심한 남편의 지배하에 그대로 머무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Steinmetz, 1987).

## VI. 맺는 말

以上 가족학 분야에서의 교환이론의 적용에 대하여 몇가지 영역에서 살펴 보았으나 Nye는 교환이론이 가족생활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동 설명에 거의 제한없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환이론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인간 행위의 예언에 합리성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론으로, 인간이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상호교환하는 이성적, 계산적 행위자임을 설명하는 공리주의적 모델이며, 인생을 경쟁자 등의 자유시장으로 가정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교환의 관점은, 인간성의 본질이라기 보다는 현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과 실력교환을 가치있게 여기는 미국인의 이념과 부합되어 재빨리 수용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Milly(1981)는 이 사회에 공정한 교환과정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창출함으로써, 개인의 이기심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Osmond, 1988).

이처럼 개인주의를 배경으로한 미국사회에서 발전된 교환이론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남녀유별, 경로효친, 수직적 인간관계, 체면유지 등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회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과연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좀 더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의 가치의식도 다분히 개인주의, 합리주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환이론의 적용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 하다.

## 【참고문헌】

- 1) 김경동(1989),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박영사.
- 2) 오용근·박영대(1985), 현대 사회학 이론, 삼영사.
- 3) 최성재(1985),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노인문제, 사회복지학회지, 제7호, 147-165.
- 4) 한근자(1983), Thibaut과 Kelley의 사회교환이론에 대한 분석과 경험적 연구 사례,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제1집, 81-109.
- 5) Blood, O. R., & Wolfe, D. M.(1960), Husbands & wives. N.Y. : Macmillan Company.
- 6) Burr, W. R., Ahern L. & Knowles, E. M.(1977), An empirical test of Rodman's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3), 505-514.
- 7) Dowd, J. J.(1980), Exchange rates and old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5(4), 596-602.
- 8) Emerson, R. M.(1976), Social exchange theo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5-362.
- 9) Emerson, R. M. & Cook, K. S.(1978), Power, equity & commitment in exchange network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43, 721-739.
- 10) Heer, D. M.(1963), The measurement and bases of family power : An overview, Marriage and Family Living, 25, 133-139.
- 11) Kelley, H. H., & Thibaut, J. W.(1978), Interpersonal relations : A theory of interdependence, N.Y. : John Wiley & Sons.
- 12) Levinger, G., & Husemann, L. R.(1976), Incremental exchange theory : A formal model for progression in dyadic social interac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9, 191-229.
- 13) Levinger, G.(1982), A social exchange view on the dissolution of pair relationships. In F. I. Nye (Eds.), Family relationships : rewards and costs.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14) Lewis, R. A., & Spanier, G. B.(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1),

- N.Y. : The Free Press.
- 15) McDonald, G. W.(1981), Structural exchange and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4), 825-837.
  - 16) Mustein, B. I.(1977), A theory and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exchange-orientation on marriage and friendship.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9(3), 543-548.
  - 17) Nye, F. I.(1978), Is choice and exchange theory the ke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2), 219-233.
  - 18) Nye, F. I.(1979), Choice, exchange,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II), N.Y. : The Free Press.
  - 19) Nye, F. I.(1979), Family Mini theories as special instances of choice and exchange theory. In F. I. Nye(Eds.), *op.cit.*
  - 20) Nye, F. I.(1973), Ambivalence in the family : Rewards & costs in group membership. In F. I. Nye(Eds.), *op.cit.*
  - 21) Nye, F. I., & McDonald, G. W.(1979), Family policy research, emergent models and some theoretical issues. In F. I. Nye(Eds.), *op.cit.*
  - 22) Osmond, W. W.(1987), Radical critical theories.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lenum Press, N.Y.
  - 23) Ritzer, J. 최재현 역(1986), *현대 사회학 이론*, 형설출판사.
  - 24) Rodman, H.(1972), Marit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s i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spring), 50-69.
  - 25) Rothschild, C. S.(1976), A macro- and micro 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 An exchange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2), 355-362.
  - 26) Singlemann, P.(1972), Exchange as symbolic interaction : convergence between two theoretical perspectiv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37. 414-424.
  - 27) Steinmetz, K.(1987), Family violence : Past, present, and future,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Eds.), *op.cit.*
  - 28) Turner, J. H., 김진균 역(1982), *사회학 이론의 구조*, 한길사.